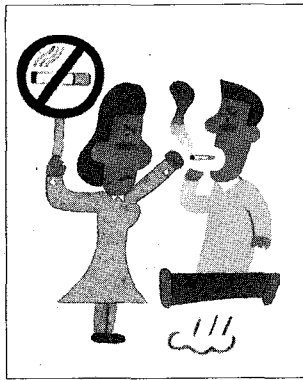


비아그라 몇 알보다 금연이 낫다

성기능을 약화시키는 흡연

마치 정력제인양 비아그라(Viagra, 화학명 Sildenafil) 열풍은 대단하다. 비아그라는 남성의 성기능 치료제로서 성기능을 살려주는 임포텐스 경구제인데 비해 현재 정력제와 혼동하고 있어 과신이나 맹목적인 남용은 금물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비아그라를 싹껏 먹어보았자 당신이 흡연가라면 그 약효는 발휘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을 아는지 모르겠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흡연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수정능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양담배의 광고 선전을 보면 힘세고 멋있게 표현되고 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이미지로 담배를 이용한다거나, 날씬하고 슬림한 이미지로 담배를 표현하는 등 강하고 성적인 이미지로 담배를 팔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는 그런 이미지와는 정말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건 실체가 아닌 “이



미지”일 뿐이다.

당신이 남자라면 그리고 흡연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의 남성의 기능을 많이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흡연은 남성 정자의 수가 적어지고 형태가 불규칙하며 정자의 운동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또 21세에서 73세 사

이의 성기능 부전 남자 4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0%정도가 동맥경화로 성기의 혈관이 좁아져 성기능에 필요한 혈류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440명중 60%가 흡연자이고 34%가 고지혈증, 30%가 당뇨병이었는데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인 흡연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담배의 니코틴은 말초혈관벽 및 해면체 조직의 평활근을 수축시키게 되는데 남성이 발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혈관의 확장과 이에 따른 엄청난 양의 혈액의 유입에 있어 니코틴은 이를 방해한다. 더군다나 발기후에는 정맥을

통한 혈액의 유출이 일어나 발기의 강직도가 떨어지고 발기 지속 시간도 감소될 수 있음을 남성 흡연자들은 집중하라.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과 마찬가지로 담배도 일시적으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성감을 높여주고 성욕을 증가시켜 최음제의 역할을 하지만 장기 사용자는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성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실험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담배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초경이 늦고 폐경이 빠르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자궁내막염이 많다고 한다.

비아그라 열풍과 더불어 이 약이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인기가 높은 모양인데 흡연이 그 약의 효과를 막을지도 모르니 여성들은 참고하시길.

건강을 잃을 높은 확률에 도박 말아야

4월 28일 열린 폐(肺)학회. 흉부(胸部)학회 합동회의에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패트리 키니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기능이 약하다"는 보고를 했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예일대학 1학년생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흡연여부를 물어보고 폐기능을 측정할 결과 어머니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 노출이 폐기능 손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폐기능이 6%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한편 노인의 흡연이 정신기능을 더욱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 에라스무스(Erasmus)의대 로라 라우너(Laura Launer)박사팀에 의해 발표됐다. 라우너 박사는 노인 흡연자의 정신기능 저하가 무자각 진행성 중풍과 관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울러 지적했다. 박사팀은 '연례 美신경학회'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중 흡연자 22%와 흡연경력자 36%, 금연자 42%를 대상으로 단기간 기억력, 장소·시간 인지력, 주의력, 수리력 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화를 받거나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측정할 결과 특히 흡연자의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흡연경험이 있는 사람은 금연자에 비해 더 떨어졌으나 통계적으로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혹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 이런 불만을 나타내는 분들은 없을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골초였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셨는데 뭘? 믿을 수 없다"라고. 물론 흡연을 한 사람중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금연을 하셨다면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는 것이며, 각 개인에 따라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에 흡연을 해도 오래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이야기는 "확률상 흡연은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왜 건강을 잃을 확률에 도박을 거는 것인가. † -서정원-